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수업 중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입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 우리는 조선 시대의 전통 복식에 대해 배웠는데요, 저는 전통 모자에 대한 내용이 무척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조선 시대 양반들이 쓰던 대표적인 모자인 흑립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흑립은 우리가 흔히 '갓'이라고 부르는 검은색 전통 모자의 다른 명칭입니다. 흑립은 말의 꼬리털인 말총이나 가늘게 쪼갠 대나무를 엮어 얇은 비단으로 싼 후 검은 칠을 한 모자로, 조선 시대 양반들이 일상복을 입을 때 착용하였습니다. (㉠ 자료 제시) 그림 속 양반이 쓰고 있는 모자가 바로 흑립입니다. 흑립은 머리를 덮는 원통형 부분인 대우, 햇빛을 가리는 부분인 양태, 흑립을 머리에 고정하기 위한 끈인 입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흑립의 모양은 시기에 따라 달라졌는데, 특히 입영은 길이가 길어지고 재료가 다양해지면서 흑립의 장식적 요소로 활용되었습니다.

양반들은 자신의 개성이나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문양으로 흑립을 장식하거나 회자를 달아 흑립을 꾸미기도 했습니다. (㉡ 자료 제시) 이 흑립의 양태는 박쥐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박쥐 문양은 행복을 상징하였으며, 수명이 길고 번식력이 좋은 박쥐처럼 오래도록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대우의 윗부분을 보시면 회자가 달려 있는데, 양반의 품계에 따라 회자의 재료에 차이를 두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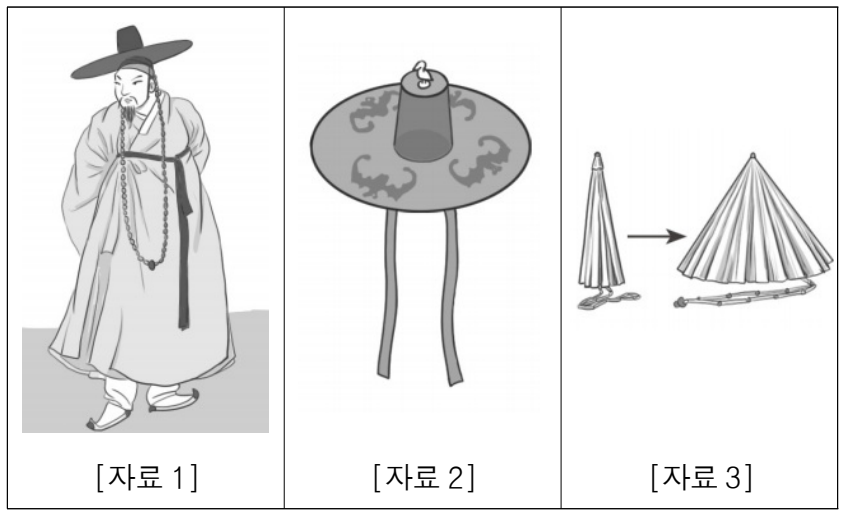
흑립은 양반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므로 양반들은 흑립을 소중히 여기고 관리했는데요, 흑립이 비나 눈에 젖거나 상하지 않도록 갈모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갈모는 기름을 먹인 한지를 접어서 만들었는데, (㉢ 자료 제시) 평소에는 이렇게 갈모를 접어서 허리춤에 차거나 도포의 소매 안에 항상 넣고 다니다가 비나 눈이 오면 갈모를 펼쳐서 흑립 위에 씌워 흑립을 보호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시대의 흑립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흑립은 조선 시대에 양반들이 즐겨 쓰던 모자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모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1.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화제와 관련한 질문을 던지며 청중과 상호 작용하고 있다.
② 화제에 대한 청중의 관심을 요청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③ 화제를 친숙한 소재에 빗대어 표현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④ 발표 순서를 안내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며 듣도록 하고 있다.
⑤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환기하며 화제를 선정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2.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료 1] [자료 2] [자료 3]

① 입영에 사용되는 다양한 재료를 설명하기 위해 ㉠에 [자료 1]을 활용하였다.
② 흑립을 구성하는 각 요소의 명칭과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에 [자료 1]을 활용하였다.
③ 회자의 위치를 보여 주기 위해 ㉡에 [자료 2]를 활용하였다.
④ 양태를 장식한 문양을 보여 주기 위해 ㉡에 [자료 2]를 활용하였다.
⑤ 갈모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에 [자료 3]을 활용하였다.

3. <보기>는 청자와 발표자가 나눈 질의응답의 일부이다. [A]에 들어갈 청자의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청자 :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고 나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A]
발표자 : 그 내용은 발표에 없었네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양반들이 갈모를 항상 가지고 다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② 품계에 따라 회자의 재료가 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품계별로 어떤 재료를 사용했나요?
③ 박쥐 문양으로 흑립을 장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문양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④ 흑립은 일상복을 입을 때 착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상복이 아닌 복장일 때는 어떤 모자를 착용했나요?
⑤ 흑립은 말총이나 대나무로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총으로 만든 것과 대나무로 만든 것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4~7] (가)는 교지 편집부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비평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 우리가 요약 콘텐츠에 대한 비평문을 어떻게 쓸지 논의하기 위해 모였잖아. 먼저 조사한 내용부터 얘기해 보자.

학생 2 : 요약 콘텐츠는 도서, 영화, 드라마와 같은 작품을 요약하거나 재가공해서 만든 영상물을 의미해. 최근 동영상 플랫폼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

학생 3 : 맞아. 주변 친구들이 '○○ 시리즈 영화 5분 요약!' 같은 영상을 많이 시청하더라고. 나도 유명한 책을 요약한 영상을 시청해 보았는데, 원작을 요약하고 의미를 해석해 주는 콘텐츠였어.

학생 2 : 단순히 요약만 하는 게 아니라 요약 콘텐츠 제작자의 해석을 덧붙이는 요약 콘텐츠가 있어? [A]

학생 3 : 응, 그런 것도 있어. 그 책은 500쪽이 넘는 분량인데 영상은 10분밖에 안 되더라고. 댓글을 보니 영상만 보고도 어려운 원작을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다는 반응이 많았어.

학생 1 : 아, 어려운 원작을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요약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이겠구나. 그렇지?

학생 2 : 맞아. 내가 본 기사에서도 요약 콘텐츠를 시청하는 가장 큰 이유가 효율성이라고 했어. 또 요약 콘텐츠의 인기 배경이 대중문화 콘텐츠 시장의 성장이라고 하더라.

학생 1 : 대중문화 콘텐츠 시장의 성장이 요약 콘텐츠의 인기 현상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잘 이해되지 않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래?

학생 2 : 최근 대중문화 콘텐츠 시장이 성장하면서 엄청난 양의 작품이 쏟아지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요약 콘텐츠를 시청하면 많은 작품을 빠르게 접할 수 있으니까 인기가 있다는 거야.

학생 1 : 그렇구나. 지금까지 요약 콘텐츠 시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이야기했는데, 요약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의 문제는 없을까?

학생 2 : 나는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요약한 콘텐츠를 시청해 보았는데, 인물의 대사도 생략되고 배경 음악도 들을 수 없어서 아쉬웠어. 그 영화의 대사랑 배경 음악이 아름다워서 감동을 느꼈었거든.

학생 3 : 내가 시청한 요약 콘텐츠는 원작을 요약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원작 내용을 과장하고 비약하는 것이 문제였어.

학생 2 : 그건 요약 콘텐츠 제작자의 해석의 자유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학생 3 : 요약 콘텐츠 제작자에게 해석의 자유가 있다는 건 맞아. 하지만 그 해석의 자유 때문에 원작의 메시지가 왜곡된다는 게 문제야. 또 이렇게 원작의 메시지가 왜곡된 요약 콘텐츠를 시청하고 그 해석을 원작에 대한 유일한 해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 [B]

학생 2 : 아,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어. 우리 학교 학생들도 요약 콘텐츠를 많이 시청하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학생 1 : 네 말이 맞아. 그럼 요약 콘텐츠만 시청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관점으로 비평문을 써 보는 거 어때?

학생 2, 3 : 좋은 생각이야.

학생 1 : 그래, 그럼 내가 초고를 작성해 볼게. 모두 고마워.

(나)

최근 동영상 플랫폼에서 800만 회가 넘는 조회 수를 달성한 '○○ 시리즈 영화 5분 요약!'과 같은 콘텐츠를 시청한 적이 있는가? 이렇게 도서, 영화, 드라마와 같은 작품을 요약하거나 재가공해서 영상물로 만든 '요약 콘텐츠'가 최근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요약 콘텐츠의 댓글에 따르면, 요약 콘텐츠 시청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요약 콘텐츠 시청이 효율적인 작품 감상 방법이라고 말한다. 즉 시간과 노력을 적게 들여 원작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중문화 콘텐츠 시장의 성장으로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제작되고 있는데, 요약 콘텐츠 시청을 통해 많은 작품을 빠르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요약 콘텐츠만 시청하는 것은 바람직한 작품 감상 방법이 아니다. 먼저 원작이 전하는 감동을 온전히 느낄 수 없다. 원작의 감동은 줄거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성 요소를 통해 전해지는데, 요약 콘텐츠를 통해서는 이러한 구성 요소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원작의 메시지가 왜곡될 수 있다. 원작을 요약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원작 내용을 과장하거나 비약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원작을 감상하지 않는다면 요약 콘텐츠의 해석이 원작에 대한 유일한 해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물론 당장은 요약 콘텐츠 시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율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작품을 빠르게 접하기 위해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다. 작품을 감상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작품 감상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삶을 간접 경험하거나 장면 및 구절의 의미, 창작자의 의도를 고민하고 자신만의 해석을 내리기 위해서이다. 요약 콘텐츠만 시청하는 것은 이러한 본질을 놓치는 행위이다.

대중문화 평론가 안△△는 원작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힘이 길러지는데, 요약 콘텐츠만 계속 시청하면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요약 콘텐츠만 시청하는 것은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놓치는 격이다. 작품을 감상하는 본질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고, 원작을 감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4. (가)의 '학생 1'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대화 참여자의 의견에 동의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② 대화 목적을 제시하고 대화 참여자의 발언을 유도하고 있다.
③ 대화 중간에 대화 내용을 정리하고 대화의 흐름을 전환하고 있다.
④ 대화 참여자의 발언을 일부 재진술하고 자신의 이해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⑤ 대화 참여자의 발언 중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언급하고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5.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에서 '학생 2'는 '학생 3'의 발화 내용을 요약한 후 생소한 용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② [A]에서 '학생 3'은 '학생 2'의 의문을 해결하며 자신의 의견에 대한 '학생 2'의 의견을 확인하고 있다.
③ [B]에서 '학생 3'은 '학생 2'의 발화 내용에 동의한 후 추가로 생각해 볼 만한 점을 제시하고 있다.
④ [B]에서 '학생 2'는 '학생 3'의 발화 내용을 비판하고 '학생 3'이 제시한 의견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⑤ [A]와 [B] 모두에서 '학생 2'는 '학생 3'의 발화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있다.

6. '학생 1'이 (가)를 바탕으로 <보기>의 내용 전개에 따라 (나)를 작성했다고 할 때,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 기>

㉠ 현안에 대한 관심 유도 → ㉡ 필자가 선택하지 않은 관점의 주장 제시 → ㉢ 필자가 선택한 관점의 주장과 뒷받침 근거 제시 → ㉣ 필자가 선택하지 않은 관점의 주장 반박 → ㉤ 필자가 선택한 관점의 주장 강조

① ㉠: (가)에서 언급된 요약 콘텐츠의 인기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요약 콘텐츠와 관련된 현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② ㉡: (가)에서 언급된 요약 콘텐츠의 댓글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 콘텐츠 시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③ ㉢: (가)에서 언급된 요약 콘텐츠 시청의 문제점을 반영하여 요약 콘텐츠 시청이 바람직한 작품 감상 방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④ ㉣: (가)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례를 추가하여 요약 콘텐츠 시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⑤ ㉤: (가)에서 언급되지 않은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지속적으로 요약 콘텐츠만 시청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7. <조건>을 반영하여 (나)의 제목을 작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 건>

ㅇ (나)의 마지막 문단과 관련한 글쓴이의 문제의식을 드러낼 것.
ㅇ 부제에서 대구와 비유적 표현을 모두 활용할 것.

① 요약 콘텐츠, 5분 요약의 허점
– 겉으로는 번지르르, 알고 보면 속 빈 강정
② 쉽게 얻으려다 본질을 놓치는 요약 콘텐츠 시청
– 오늘은 시간 아끼려는 지름길, 내일은 사고력 잃는 고생길
③ 요약 콘텐츠, 제작자의 시선으로 원작을 재해석하다
– 해석의 자유인가 원작의 왜곡인가
④ 요약 콘텐츠 시청, 떠먹여 주기식 작품 감상의 한계
– 쉽고 빠르게 먹으려다 체할 수도 있다면
⑤ 대중문화 콘텐츠 시장에 불어온 새바람, 요약 콘텐츠
– 요약 콘텐츠의 인기 요인을 분석하다

[8~10] 다음은 학교 신문에 싣기 위해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당류의 과다 섭취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대표적 당류인 설탕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식품이 소개되고 있다. 그중 올리고당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설탕 대체 식품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올리고당은 설탕보다 열량이 낮고, 설탕을 섭취할 때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려 '건강한 단맛'으로 불린다. 올리고당과 설탕은 모두 탄수화물인데, 올리고당은 설탕과 달리 위에서 분해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탄수화물 분자 구조가 복잡하여 설탕보다 소화와 흡수가 느리다. 탄수화물 분자 1~2개로 구성된 과당, 포도당, 설탕 등은 흡수 속도가 빨라 당류로 분류되지만, 올리고당은 당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올리고당의 종류는 여러 가지이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제품으로 접할 수 있는 올리고당은 정제하지 않은 설탕인 원당을 가공하여 만든 프락토올리고당과, 곡물의 전분을 가공하여 만든 이소말토올리고당이 있다. 프락토올리고당은 이소말토올리고당보다 열량이 낮고 식이섬유 함량이 높지만 열에 약하기 때문에 샐러드 등 차가운 요리를 만들 때 적합하며, 이소말토올리고당은 상대적으로 열량은 다소 높고 식이섬유 함량이 낮지만 열에 강하기 때문에 조림이나 볶음과 같은 가열 요리에 적합하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올리고당 제품 구입 시에는 용도에 맞는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올리고당 제품에 올리고당 외에도 과당, 포도당, 설탕 등 당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올리고당의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면 설탕을 비싸게 사는 꼴이 될 수 있다. 또한 올리고당은 설탕보다 단맛의 정도가 덜하기 때문에 기존의 단맛을 기대하면 많은 양의 올리고당을 사용하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A] 올리고당은 잘 사용하면 설탕의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유사한 식품이다. 올리고당 외에도 자일리톨, 알룰로스 등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감미료가 각광을 받고 있다.

8. 다음은 초고를 작성하기 전에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다. ㉠ ~ ㉤ 중, 학생의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ㅇ 올리고당이 주목받는 배경을 소개하며 글을 시작해야겠어. ·· ㉠
ㅇ 올리고당을 설탕과 비교하며 올리고당이 가지는 장점을 제시해야겠어. ····· ㉡
ㅇ 탄수화물 분자 구조를 언급하며 올리고당의 특성을 설명해야겠어. ····· ㉢
ㅇ 프락토올리고당과 이소말토올리고당이 지닌 문제점을 언급하며 그 원인을 분석해야겠어. ····· ㉣
ㅇ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며 올리고당 제품 선택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겠어. ····· ㉤

① ㉠ ② ㉡ ③ ㉢ ④ ㉣ ⑤ ㉤

9. <보기>는 [A]를 고쳐 쓴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반영된 교사의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올리고당은 잘 사용하면 설탕의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식품이다. 올리고당 제품을 고를 때에는 용도를 고려하고 함량을 확인하여 선택하고, 요리에 활용할 때에는 적정량을 사용하여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자.

① 중의적인 표현을 수정하고, 올리고당을 활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사례를 언급하는 게 어때?
② 중의적인 표현을 수정하고, 올리고당과 설탕을 용도에 맞게 선택하는 방법을 부각하는 게 어때?
③ 단어 선택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올리고당을 선택하고 사용할 때의 유의점을 강조하는 게 어때?
④ 단어 선택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올리고당 과잉 섭취가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환기하는 게 어때?
⑤ 단어 선택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올리고당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또 다른 식품을 소개하는 게 어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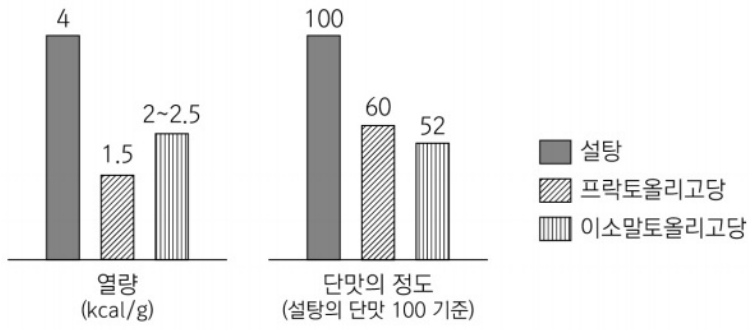
10. <보기>는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전문가 인터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루 당류 섭취량을 100g 이하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당류를 과다 섭취할 경우 비만과 고혈압의 발생률이 각각 1.39배, 1.66배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식품을 섭취할 때는 '표시사항'의 당류 함량을 확인하여 당류를 과다 섭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연구 자료



(다) 신문 기사

올리고당 제품을 잘 고르려면 올리고당 제품 뒷면에 쓰인 '표시사항'에서 성분명과 함량을 확인해야 한다. 해당 제품이 쓰임새에 맞는 올리고당인지 성분명을 통해 확인하고, 올리고당이 너무 적게 들어 있지 않은지 올리고당 함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① (가) : 당류의 과다 섭취가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비만과 고혈압의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점을 제시하여 1문단을 구체화한다.
② (나) : 올리고당이 설탕보다 열량이 낮다는 내용에, 올리고당과 설탕의 열량 수치를 추가하여 2문단을 뒷받침한다.
③ (다) : 용도에 맞는 올리고당 제품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표시사항' 중 성분명을 참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3문단을 보강한다.
④ (가), (다) : 올리고당 제품에 당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에, '표시사항'을 통해 당류의 함량과 올리고당의 함량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4문단을 보강한다.
⑤ (나), (다) : 기존의 단맛을 기대하면 올리고당을 많이 사용하게 될 수 있다는 내용에, 덜 달게 먹는 식습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4문단을 보강한다.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 오는 어미이다. 단어의 끝에 오는 어말 어미는 용언의 어간과 더불어 단어를 이루므로 활용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용언의 어간과 어말 어

미 사이에 오는 선어말 어미는 ㉠ 쓰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 하나가 오는 경우도 있으며 ㉢ 두 개 이상 연달아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선어말 어미는 시제와 높임 등의 문법적 의미를 드러낸다. '선생님은 벌써 댁으로 떠나셨겠다.'의 '떠나셨겠다'에는 '-시-', '-었-', '-겠-'과 같은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 '-시-'는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었-'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며, '-겠-'은 추측의 의미를 드러낸다. '떠나겠셨다'와 같은 표현이 어색한 데에서 알 수 있듯, 선어말 어미가 연속해서 나타날 때에는 일정한 결합 순서가 있다. 선어말 어미가 연속해서 쓰일 때는 일반적으로 주체 높임, 시제, 추측이나 회상의 순으로 배열된다.

한편, 어말 어미 앞에 위치한다고 해서 모두 선어말 어미인 것은 아니다. 가령 '문이 바람에 닫혔다.'에서 '-히-'와 '-었-'은 모두 어말 어미 '-다' 앞에 오지만, '-었-'은 선어말 어미인 반면 '-히-'는 접사이다. 접사는 새로운 단어의 형성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선어말 어미와 다르다. 선어말 어미가 결합한 '닫았다'는 '닫다'의 과거형이지만, 접사가 결합한 '닫히다'는 '닫다'의 피동사로서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 '닫다'가 '닫히다'가 되면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아도 새로운 단어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어사전에도 '닫다'와 '닫히다'는 표제어로 올라 있으나 '닫았다'는 그렇지 않다. 또한 선어말 어미에 비하여 접사는 결합할 때 제약이 심하다. 가령 '(구멍을) 뚫다', '(종이를) 찢다'와 같은 용언에 '-었-'은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는 반면 '-히-'는 결합할 수 없다.

11.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그 사건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에서 '끝난', '아니다'를 모두 ㉠의 예로 들 수 있군.
②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께 편지를 드렸다.'에서 '계시는', '드렸다'를 모두 ㉡의 예로 들 수 있군.
③ '그녀는 학교 가는 길을 잘 알았다.'에서 '가는'을 ㉠의 예로, '알았다'를 ㉡의 예로 들 수 있군.
④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왔겠군.'에서 '지나고'를 ㉠의 예로, '왔겠군'을 ㉢의 예로 들 수 있군.
⑤ '그분께서 이 글을 쓰셨을 수도 있겠다.'에서 '있겠다'를 ㉡의 예로, '쓰셨을'을 ㉢의 예로 들 수 있군.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 ~ ⓒ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 그는 쪽지를 ⓐ 구겼지만 버리지는 못했다.
- 그 물건은 어제부터 책상에 ⓑ 놓여 있었다.
- 우리 가족은 할머니 댁에서 김치를 ⓒ 담갔다.

① ⓐ: 접사가 결합하여 피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② ⓐ: 선어말 어미가 결합하여 추측의 의미를 드러낸다.
③ ⓑ: 선어말 어미가 결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④ ⓑ: 접사가 결합하여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달라졌다.
⑤ ⓒ: 접사가 결합하여 사전에 오를 수 있는 단어가 형성되었다.

13. <보기>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예쁜 아이가 활짝 웃는다.
㉡ 나는 어제 새 가방을 샀다.
㉢ 지금 이곳은 동화 속 세상처럼 아름답다.
㉣ 작년에는 날씨가 추웠으나 올해에는 따뜻하다.
㉤ 설령 눈이 올지라도 우리는 어김없이 밖에 나간다.

① ㉠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② ㉡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문장이다.
③ ㉢에는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안긴문장이 있다.
④ ㉣은 두 개의 홑문장이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⑤ ㉤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이다.

14. 다음은 수업 상황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 : 선생님, '회상하건대'를 줄이면 '회상컨대'와 '회상건대' 중 어떻게 적는 게 맞나요?
선생님 : 그럴 때는 한글 맞춤법 규정을 살펴봐야 해요.

> **제40항**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 [붙임]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하'가 줄어드는 기준은 '하' 앞에 오는 받침의 소리인데 '하' 앞의 받침의 소리가 [ㄱ, ㄷ, ㅂ]이면 '하'가 통째로 줄고, 그 외의 경우에는 'ㅎ'이 남아요. 그래서 '회상하건대'는 '하'의 'ㅏ'가 줄고 'ㅎ'이 'ㄱ'과 어울려 거센소리가 되어 '회상컨대'로 적어야 해요.

학생 : 네, 감사해요. 한글 맞춤법에도 준말 규정이 있었네요.
선생님 : 그럼 다음 자료를 규정에 맞게 준말로 바꿔 볼까요?

깨끗하지 않다	연구하도록	간편하게
생각하다 못해	답답하지 않다	

학생 : [㉠]
선생님 : 네, 잘했어요.

① '깨끗하지 않다'는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기 때문에 '깨끗치 않다'로 써야 합니다.
② '연구하도록'은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기 때문에 '연구토록'으로 써야 합니다.
③ '간편하게'는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기 때문에 '간편케'로 써야 합니다.
④ '생각하다 못해'는 '하'가 통째로 줄기 때문에 '생각다 못해'로 써야 합니다.
⑤ '답답하지 않다'는 '하'가 통째로 줄기 때문에 '답답지 않다'로 써야 합니다.

15. <보기>를 참고하여 중세 국어를 이해한다고 할 때, ㉠과 ㉡의 사례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보 기>

모음 조화는 ㉠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어울리고 ㉡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으로,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보다 규칙적으로 적용되었다.

	㉠	㉡
①	ᄇᆞᄅᆞ매[바람에]	·ᄲᅮ·메[씀에]
②	·ᄲᅮ·메[씀에]	ᄠᅳ·들[뜻을]
③	ᄠᅳ·들[뜻을]	거부븨[거북의]
④	ᄆᆞᅀᆞᄆᆞᆯ[마음을]	바ᄂᆞᄅᆞᆯ[바늘을]
⑤	나ᄅᆞᆯ[나를]	도ᄌᆞᄀᆡ[도적의]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부산 부두에 발을 올려 딛는 때부터 내 고향이다. 내 고향은 나에겐 편안히 쉴 자리를 줄 리가 없다.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꾀할 나도 아니**다. 그곳에는 여러 동무들이 있을 것이다. 어서 신들메를 끄르지 말고 그대로 뛰어나오시오. 당신만은 온몸을 사리고 저편에 붙지 말고 용감하게 우리 속에 와 끼어 주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힘차고 씩씩한 친구들이 나를 맞아 줄 것이다. **오, 어서 달려가다오!**'

윤건은 차 속이 좁고 갑갑한 듯이 땀에 절은 학생복 저고리는 벗어 걸어 놓고 셔츠 바람으로 몇 번이나 승강대에 나와서 날아가는 이국의 밤경치를 내다보곤 하였다.

그 이튿날 아침, 차가 고베 플랫폼에서 쉬게 되었음에 윤건은 도시락을 사러 나왔다가 어떤 낯익은 조선 청년을 만나게 되었다. 그 청년도 윤건을 얼른 알아보고 마주 와서 손을 잡았다.

"귀국하시는 길입니까?"

"네."

"저도 이 찻간에 탔습니다."

그 청년은 윤건이 도시락 사려는 것을 보고 말렸다. 윤건은 그에게 끌려 식당차로 올라갔다. 윤건은 그 청년의 성명을 기억하지는 못하였으나 그가 W대학 학생이었던 것과 그가 고학은 하나 자기와 같이 험한 일을 하지 않고도 어떻게 좋은 하숙에 있으며, 학비를 넉넉하게 쓰던 사람이란 것으로 그의 낯을 익혀 둔 기억만은 있었다.

"이번이 졸업이시던가요?"

그 남색 신사복을 새로 지어 입은 청년이 보이에게 조반을 시키고 윤건에게 물었다.

"네, 졸업하고 나갑니다."

"저도 이번에 아주 나가는 길이지요. 동경 길을 다시 못 다닐 것을 생각하면 퍽 섭섭해요. 돈만 모으면 얼마든지 또 올 수야 있겠지만…… 실례지만 어데 취직되셨습니까?"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럼, 매우 걱정되시겠군요. 놀지들은 말아야 할 터인데…… 어떤 방면을 희망하십니까?"

윤건은 얼른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 청년의 말이 몇 마디 내려가지 않아서 윤건의 비위를 건드려 놓았다. 돈만 모으면 또 동경 길을 다닐 수 있다느니, 놀지들은 말아야 한다느니, 어떤 방면을 희망하느냐는 등 몹시 윤건의 귀에 거슬리는 말들이었기 때문이다. 꽤 달랑거리는 친구로구나, 하고 대뜸 멸시를 느꼈으나 윤건은 곧 그것을 후회하였다.

'길동무다! 단순하게 한차를 타고 **한 조선으로 간다는 것**보다도 더 큰 운명에 있어서 길동무가 아니냐?'

윤건은 곧 안색을 고치고 그에게 대답하였다.

"글쎄, 걱정이올시다. 아직 어떤 방면으로 나갈는지 생각 중이올시다. 노형은 어데 작정되셨습니까?"

"네. 뭐 신통한 곳은 아니에요. 그래두 여간 힘들지 않은 곳이에요. 더구나 조선 사람은 좀처럼 가 볼 생각도 못 먹는 곳인데 어떻게 **유력자 하나를 만나서 한 1년 졸랐더니 다행히 됐**습니다."

"어딘데요?"

"○○은행 본점이오."

"㉠ 좋은 데 취직하셨습니다."

윤건은 속으로 아니나 다르랴, 하면서도 상대자가 상대자인만치 마음에 없는 좋은 대답을 해 주었다.

"뭘요…… 하기는 큰일을 못 할 바에야 내 한 사람이 헐벗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작게 보아 **조선 사람 하나가 헐벗지 않는 것**이 되니까요……."

"㉡ 좋은 해석이십니다."

윤건은 또 꿀꺽 참고 마음에 없는 거짓 대답을 해 주었다.

[중략 줄거리] 청년과 헤어진 윤건은 부산행 밤배를 타러 가면서 석탄 연기에 그을린 조선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게 된다.

'저 옷이 찬란한 문화를 가진 역사 있는 민족의 의복이라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내일부터 조선 땅에서 보는 저 옷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저렇게 보기 싫지는 않겠지…….'

윤건은 여러 사람의 행렬에 끼어서 배를 탔다. 여러 사람이 뛰는 바람에 윤건도 손가방을 들고 삼등실 있는 편으로 뛰어갈 때 누가 조선말로 '여보시오?'하고 부르는 이가 있었다. 양복은 입었으나 조선말을 한 것은 물론 얼굴 생김이 어디에다 갖다 놓아도 일견에 조선 사람의 모습이었다. 윤건은 반가워하였다.

"저 부르셨습니까?"

그러나 그 신사는 의외에도 불손스러웠다.

"거기 좀 섰어."

윤건은 그때 그가 무엇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챘다. 심히 불쾌스러웠다. 윤건은 그 형사에게 행선지가 불분명한 점으로 유다른 조사를 받았다. 갑판 위에서 손가방을 열어젖히고 책갈피마다 열어 보인 뒤에 선실로 들어간즉 윤건을 위해서 남겨 놓은 자리는 없었다. 아무 데나 남의 발치가리에 쑤시고 누웠다. 옆에는 오사카에서 돌아온다는 조선 노동자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에선 이런 말이 나왔다.

"인전 다 왔소, 이 배만 타면 조선 땅에 온 것이나 다름없소……."

윤건도 과연 그렇다 하였다. 이 배만 타면 조선이란 그립던 땅을 밟은 것이나 다름없는 반가움도 앞서거니와, 그와 반면에는 선실에 들어서기도 전부터 조선다운 울분과 불안이 앞을 막는 것도 벌써 조선 땅의 분위기라 하였다.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오시오?"

윤건은 울분한 심사를 가라앉혀 가지고 배가 떠난 지 한참 만에 옆에 누운 조선 노동자에게 말을 건넸다.

"돈이 뭐요, 벌이가 좋으면 나가겠소?"

"조선보다야 돈이 흔하지 않소?"

"그 사람네 흔한 거 상관있나요."

"그래, 노형은 무슨 일을 하셨소?"

"길에 산스이 했지요. 일본 와서 큰길에 물만 몇 달 동안 뿌려 주고 가오."

"첨에는 조선 사람도 1원 20전씩은 주었다는데 내가 갔을 때는 80전 줍디다. 그것도 요즘은 50전씩 주니 무얼 모아 보는 수가 있어야지요."

"고향은 어데시오?"

"대구 지나 김천이올시다. 우리 다 **한 고향 사람들**이지요."

"그럼, 고향에 가시면 농사하십니까?"

"농사니 농토가 있어야죠. 우리 제각기 저 한 몸만 같으면 조밥보다는 나으니 일본서 뒹굴겠지만 돈들도 못 벌 바에야 첫째 **처자식이 그리워 허덕대구** 나오지요."

윤건은 더 묻지 않았다. 배는 쿵쿵거리며 엔진 소리가 높아갔다.

– 이태준, 「고향」 –

16.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외부 이야기의 서술자가 자신이 겪은 내부 이야기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② 서술자가 여러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여 인물의 다양한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③ 서술자가 공간의 이동에 따라 바뀌면서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관점에서 사건과 인물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⑤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고백적 진술을 통해 자신이 처한 심리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17. '윤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조선의 친구들이 자신을 반겨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② 오사카로 돌아가는 배에서 노동자와 이야기를 나눈다.
③ 고베 플랫폼에서 도시락을 사려는 조선 청년을 만류한다.
④ 여비가 부족하여 돈을 빌리기 위해 조선 청년을 찾아간다.
⑤ 행선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일본인으로 보이는 형사에게 조사받는다.

18. 맥락을 고려하여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상대의 성취를 축하하는 말이고, ㉡은 상대의 의견에 동조하는 말이다.
② ㉠은 상대의 우월함을 인정하는 말이고, ㉡은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한 말이다.
③ ㉠은 상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한 말이고, ㉡은 상대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한 말이다.
④ ㉠과 ㉡은 모두 상대에 대한 진심을 드러내지 않은 말이다.
⑤ ㉠과 ㉡은 모두 상대의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한 말이다.

19.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1931년에 발표된 「고향」은 '귀향' 모티프를 활용해 고향 사람들과 고국산천이라는 물리적 실체로서의 고향과 민족 공동체라는 정신적 의미의 고향을 형상화하였다. 이를 위해 작가는 귀향의 동기가 대립되는 '지식인'과 물리적 실체로서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동자'를 등장시킨다. 또한 작가는 '지식인'을 '지사형'과 '속물형'으로 나누고 '지사형'은 개인의 안위보다는 조국을 우선시하는 인물로, '속물형'은 개인적 실리를 좇는 자신의 행위를 조국을 위한 것으로 포장하는 세속적 인물로 그리고 있다.

① '그것을 꾀할 나도 아니'라며 '오, 어서 달려가다오!'라고 하는 데에서, 지사형 인물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겠군.
② '한 조선으로 간다는 것', '한 고향 사람들'이라고 하는 데에서, 민족 공동체라는 정신적 의미의 고향을 확인할 수 있겠군.
③ '유력자 하나를 만나서 한 1년 졸랐더니 다행히 됐'다는 데에서, 속물형 인물의 귀향 동기를 확인할 수 있겠군.
④ '조선 사람 하나가 헐벗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데에서, 자신의 행위를 조국을 위한 것으로 포장하는 속물형 인물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겠군.
⑤ '처자식이 그리워 허덕대구' 나온다고 하는 데에서, 물리적 실체로서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동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20~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미국의 헌법학자 제롬 배런은 1967년 언론 매체 접근·이용권을 최초로 주장하였다. 언론 매체 접근·이용권이란 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언론 매체에 자유로이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배런은 당시 미국과 영국 내 언론의 독과점으로 인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언론사가 보다 많은 시청자나 독자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주장이나 의견보다는 대중적인 주장이나 의견만을 전달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언론 매체가 공론장의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의 다양하고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언론 매체가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려고 해도 매스미디어에 ⓐ 견주면 그 전달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보았다. 매스미디어의 거대화, 독점화에 따라 언론의 자유가 매체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소수의 계층이나 집단의 것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에 시민들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언론 매체 접근·이용권을 인정해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법적으로 보장받는 언론 매체 접근·이용권의 대표적인 형태는 반론권이다. 이는 언론 매체에 의하여 명예 훼손·비판·공격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자기와 관련이 있는 보도에 대해 반론이나 정정 또는 해명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반론권은 언론 매체에 정정 및 반론 보도, 추후 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되어 있다. 반론권 이외에도 방송법에 언론 매체가 사회의 다양성을 해치거나 임의로 특정 의견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통해 국민이 언론 매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언론 매체 접근·이용권은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실현에 ⓑ 이바지하는 중요한 권리이다. 그러나 언론 매체 접근·이용권은 언론 매체가 신문 등의 표현 내용을 결정하는 권리인 편집권과 ⓒ 맞부딪칠 수도 있다. 이에 언론 매체에 일정한 기준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만약 언론 매체가 일정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할 때는 구제 수단을 활용하여 국민의 언론 매체 접근·이용권을 보호하고 있다.

(나)

언론 보도에 의해 명예나 권리를 침해받은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명예 훼손죄로 고소할 수도 있지만,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따라서 언론중재법에는 언론 매체에 의해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 신속하고 대등한 방어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정정 보도 청구권과 반론 보도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다.

정정 보도 청구권은 진실하지 않은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도 내용의 잘못을 바로잡는 정정 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반론 보도 청구권은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원 보도가 허위임을 입증해야 한다. 반면 반론 보도는 원 보도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

정정 보도 청구권과 반론 보도 청구권의 주체는 보도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으며 그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다. 청구권의 주체는 언론 보도의 '사실적 주장'에 대해 정정 보도와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사실적 주장'이라는 것은 증거에 의해서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 관계에 관한 주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 광고 등은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피해자는 해당 언론 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정 또는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해당 언론 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정정 또는 반론 보도 청구는 언론사 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언론사가 청구를 수용한다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정 또는 반론 보도문을 방송하거나 ⓓ 싣게 된다. ㉠ 이때의 보도는 원 보도와 동일한 채널, 지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방송 진행자는 보도문을 읽을 때 통상적인 속도로 읽어야 한다.

만약 언론중재법상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면 민법 제764조에 의거하여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도 있다. 민법상 정정 보도 청구권에 따르면 언론 보도 등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은 언론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해당 언론 보도가 있은 후 10년이 지났을 때에는 불가하다. 민법상 정정 보도를 청구할 때는 언론사 등의 대표자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언론 보도로 손해를 가한 기자, 편집자 등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상 정정 보도 청구권이 성립하려면 언론중재법과 달리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것과, 해당 보도에 위법성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만약 언론 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해당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된다. 이처럼 민법상 정정 보도 청구권은 언론중재법상 정정 보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엄격한 성립 요건을 필요로 한다.

정정 보도 청구권 및 반론 보도 청구권은 피해를 입은 개인의 입장을 제공하게 하여 개인의 피해 회복을 ⓔ 돕고 우리 사회가 진실을 발견하고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 데 일조한다.

20.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권리의 유형을 구분하였고, (나)는 권리의 주체를 법률의 내용에 따라 분류하였다.
② (가)는 권리의 발전 과정을 소개하였고, (나)는 권리의 실행 과정에 나타나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③ (가)는 권리의 등장 배경과 실현 양상을 설명하였고, (나)는 근거한 법에 따른 권리의 성립 요건 차이를 비교하였다.
④ (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권리의 의의를 평가하였고, (나)는 다른 권리와 대비하며 권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⑤ (가)는 권리가 올바르게 실행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였고, (나)는 권리의 실행으로 인해 변화된 양상을 서술하였다.

21. (가), (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언론 매체가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국민의 언론 매체 접근·이용권은 보호받을 수 있다.
②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민법상 정정 보도 청구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민법상 정정 보도 청구권은 언론중재법상 정정 보도 청구권보다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길다.
④ 언론중재법상 정정 보도 또는 반론 보도를 청구하려면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
⑤ 배런은 시민에게 매체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아 언론의 자유가 소수의 것으로 전락했다고 보았다.

22. ㉠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원 보도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대등한 방어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② 원 보도를 한 언론사의 대표자에게 원 보도를 진실에 맞게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이다.
③ 원 보도에 비해 신속한 전달 수단을 제공하여 언론 매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④ 언론 매체가 대중적인 주장과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주장을 차별적으로 보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⑤ 양측의 주장을 같은 방식으로 제공하여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시청자 또는 독자가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23. (가)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ㄱ. 방송법 제6조 제9항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하는 경우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ㄴ. 방송법 제6조 제2항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ㄷ. 언론중재법 제17조 제1항
언론 등에 의하여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 절차가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 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① ㄱ은 언론 매체가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② ㄱ은 언론 매체에 의하여 비판을 당한 국민이 반론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③ ㄴ은 언론 매체가 사회의 다양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④ ㄷ은 매스미디어를 소유하지 않아도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⑤ ㄷ은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4.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동물 병원을 운영하는 A는 △△ 신문의 기자 B가 제보 내용에 대한 별도의 취재 없이 보도한 기사로 인해 매출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었다. A는 다음의 내용으로 △△ 신문의 대표자 C 또는 기자 B에게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요청하고자 한다.

> 본 신문은 2022년 9월 1일자 10면에 '○○시 소재 동물 병원, 입원한 반려견 방치하고 처방전 미발급'이라는 제목으로 ○○시에 소재한 모 동물 병원이 입원한 반려견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으며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의약품을 투약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그러나 해당 동물 병원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동물 병원의 직원들이 입원한 반려견에게 적정량의 먹이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해당 동물 병원에서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 법에 근거하여 수의사가 직접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① A가 별도의 취재를 하지 않은 B에게 정정 보도를 청구하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겠군.
② A는 먹이 제공과 관련된 내용은 정정 보도를, 처방전 미발급과 관련된 내용은 반론 보도를 청구하려는 것이겠군.
③ A가 △△ 신문의 보도가 있음을 안 날이 2023년 9월 1일이라면 민법 제764조에 의거하여 권리를 행사해야겠군.
④ B의 기사 중 입원한 반려견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지 않겠군.
⑤ C가 언론중재법에 의거한 A의 청구를 수용한다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A가 요청한 보도문을 △△ 신문에 싣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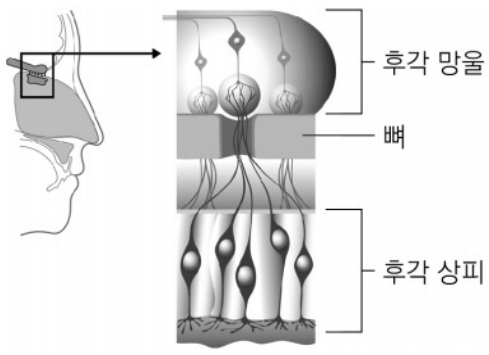
25. 문맥상 ⓐ ~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비하면
② ⓑ: 기여하는
③ ⓒ: 충돌할
④ ⓓ: 게재하게
⑤ ⓔ: 증진하고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냄새를 어떻게 인식할까? 냄새의 원인이 되는 기체 상태의 분자가 코로 들어온 후 몇 가지 과정을 거쳐 뇌에서 냄새를 인식하게 된다. 과학자들은 분자의 구조와 뇌가 인식하는 냄새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추측하고 이를 밝히려고 했으나 한계에 부딪혔다. 단일 분자 물질이 농도에 따라 전혀 다른 냄새로 인식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다른 감각들은 자극이 전기 신호로 바뀌어 인식된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후각을 이해하려는 접근이 도입되었다. 20세기 후반에 미국의 과학자인 액설과 벅은 냄새 분자를 전기 신호로 전환하는 매개체인 후각 수용체를 발견했다. 후각 수용체를 중심으로 [후각 자극의 신호 전달 과정]을 살펴보자.

코안의 가장 윗부분에 후각 수용체가 있는 엄지손톱 크기의 후각 상피가 있다. 냄새 분자는 우리가 호흡할 때 공기에 실려 후각 상피로 가는데, 방향에 따라 정방향 경로와 역방향 경로가 있다. 전자는 숨을 들이쉴 때 신체 외부에 있던 냄새 분자가 콧속으로 유입되는 경로이고, 후자는 신체 내부에 있던 냄새 분자가 목구멍을 통해 코 뒤로 올라가 숨을 내쉴 때 후각 상피에 도달하는 경로이다. 후자를 통해 이동한 냄새 분자는 미각으로 느낀 맛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냄새 분자가 도달한 ㉠후각 상피에는 냄새를 받아들이는 후각 신경 세포 수백만 개가 밀집해 있다. 세포의 말단에는 가느다란 섬모들이 뻗어 나와 얇은 점액질층에 잠겨 있고, 섬모 표면에는 특정한 몇 종류의 분자와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막단백질인 후각 수용체가 점점이 박혀 있는데 한 개의 후각 신경 세포에는 한 종류의 후각 수용체만 존재한다. 냄새 분자는 점액질층을 통과하여 후각 수용체와 결합한다. 대부분의 냄새에는 수백 종류의 분자가 포함되는데, 이 냄새 분자와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후각 수용체가 동시에 활성화된다. 인간은 약 400종류의 후각 수용체로 1만여 가지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후각 신경 세포의 세포막 안팎에 전압 차가 만들어지면서 후각 신경 세포에서 전기 신호가 발생한다. 이 신호는 후각 신경 세포에서 뻗어 나온 긴 돌기인 축삭을 타고 뼈의 구멍을 통해 뇌로 올라가 ㉡후각 망울에 있는 토리로 전달된다. 하나의 토리에는 동일한 종류의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되어 만들어진 모든 전기 신호가 모인다. 이때 수천 개의 토리 중 신호를 전달받은 토리들이 패턴을 만드는데, 신호의 세기도 패턴에 반영된다. 냄새마다 고유한 일종의 패턴 지도가 있어 다른 냄새와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된다. 단일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이라도 농도에 따라 다른 패턴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이를 전혀 다른 냄새로 인식한다.

후각 망울의 토리에서 만들어진 패턴은 신경 세포인 승모 세포를 통해 전기 신호가 강화되어 대뇌로 전달되고, 대뇌의 다양한 정보들과 합쳐져 최종적으로 냄새를 인식하게 된다. 승모 세포가 연결된 대뇌의 후각 겉질에는 과거에 맡았던 냄새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새로운 냄새의 정보를 기존의 것과 비교하고, 냄새 정보를 편도체, 해마, 눈확이마 겉질 등 대뇌의 다른 영역으로 보낸다. 이 냄새 정보는 정서 반응에 관여하는 편도체 및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로 즉시 전달된다. 이 때문에 어떤 냄새를 맡으면 무의식중에 즐겁거나 불쾌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순식간에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다. 그리고 눈확이마 겉질에서는 개인의 경험, 기대, 상황 등의 정보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어떤 냄새인지 판단하여 냄새를 인식하게 된다.

26.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① 후각 상피에 있는 점액질층의 성분은 무엇인가?
② 후각 겉질과 눈확이마 겉질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③ 후각 수용체가 냄새 분자와 결합하는 원리는 무엇인가?
④ 냄새 분자가 정방향 경로로 들어올 때의 장점은 무엇인가?
⑤ 냄새를 맡으면 순식간에 기억이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27.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두 물질의 냄새 분자가 다르다면 토리에서 만들어진 패턴이 다르겠군.
② 액설과 벅은 냄새 분자의 구조에 따라 냄새가 인식되는 방법을 발견했겠군.
③ 자극이 전기 신호로 바뀌어 인식될 것이라는 접근은 후각 이외의 감각에 먼저 도입되었겠군.
④ 어떤 냄새를 큘 냄새로 판단했다면 과거의 냄새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비교하는 과정이 있었겠군.
⑤ 코가 막혔을 때 미각으로 느낀 맛을 더욱 풍부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은 후각 상피로 가는 역방향 경로가 막혔기 때문이겠군.

28. [후각 자극의 신호 전달 과정]을 중심으로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에서 냄새 분자가 섬모에 닿으려면 먼저 점액질층을 통과해야 한다.
② ㉠에서 냄새 분자와 후각 수용체가 결합하면 후각 신경 세포에서 전기 신호가 발생한다.
③ ㉡에서 만들어진 패턴은 승모 세포를 통해 전기 신호가 강해져 대뇌의 후각 겉질로 전달된다.
④ ㉠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되어 발생한 전기 신호는 한 개의 축삭에 모여 ㉡으로 전달된다.
⑤ ㉠으로부터 전달된 전기 신호와 세기를 반영하여 ㉡에서는 패턴이 만들어진다.

29. 윗글과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전자 코'는 질병 조기 진단, 식품의 신선도 측정 등에 두루 쓰인다. 최근 사람의 후각과 원리가 비슷한 6가지 나노 금 입자로 구성된 전자 코가 개발돼 질병 진단을 위해 단백질을 분석할 때 쓰이고 있다. 6가지 나노 금 입자에 특정한 단백질과 결합하는 물질들이 코팅되어 있다. 나노 금 입자는 형광물질과 결합한 상태인데 단백질이 결합하면 형광물질이 분리되면서 빛을 낸다. 나노 금 입자와 단백질의 결합 여부 및 결합하는 정도에 따라 빛의 세기가 달라지고, 이러한 빛들이 만드는 빛의 분포는 단백질마다 다른 고유한 특징이다. 이러한 빛의 분포를 컴퓨터로 분석하고 기존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단백질의 종류를 파악한다.

① '토리에서 만들어진 패턴'과 '빛의 분포'는 대상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고유한 특징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군.
② '후각 수용체'와 '단백질과 결합하는 물질들'은 대상과 선택적으로 결합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군.
③ '대뇌의 후각 겉질'과 '컴퓨터'는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정보와 비교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군.
④ '승모 세포'와 '나노 금 입자'는 대상과의 결합 여부와 정도를 알려 준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군.
⑤ '전기 신호'와 '빛'은 두 대상의 결합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군.

30.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① 바람에 날린 연이 높이 떠올랐다.
② 붉은 태양이 바다 위로 떠올랐다.
③ 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④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야 떠올랐다.
⑤ 그녀는 배구계의 새 강자로 떠올랐다.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방이 차차 밝아 오매 마침 영릉골 관비 한 사람이 외촌에 가다가 돌아오는 길에 청수 가에 다다르니 어떤 여자가 물가에서 통곡하며 물에 빠져 죽고자 하거늘 급히 쫓아와 강낭자를 붙들어 물가에 앉히고 이유를 물으니라. 그 후에 제 집으로 가자 하나 낭자 한사코 죽으려 하거늘 관비 여러 가지로 타일러 데리고 와서 수양딸로 정한 후에 자색과 태도를 살펴보니 천상 선녀 같은지라. 이 고을 동리마다 수청을 드리면 천금의 재산이 부럽지 않으며, 만 량 가진 태수를 원하겠느냐. 만 가지로 달래어 다른 데로 못 가게 하더라.

각설. 이때에 유충렬이 강 승상의 집을 떠나서 서쪽 하늘을 바라보고 정처 없이 가며 신세를 생각하니, 속절없고 하릴없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산중에 들어가 삭발하고 중이 되어 훗날의 도를 닦으리라 하고 청산을 바라보고 종일토록 가더니 한 곳에 다다르더라. 앞에 ㉠큰 산이 있으되 천 개의 봉우리와 만 개의 골짜기가 하늘 높이 솟았고, 오색구름이 구리봉에 떠 있고 갖가지 화초가 만발한지라. 장차 신령한 산이라 하고 찾아 들어가니 경치가 뛰어나고 풍경이 산뜻하다. 산행 육칠 리에 들리는 물소리 잔잔하고 보이는 청산은 울창한데 푸른 숲이 더위잡는다. 석양에 올라가니 수양버들의 천만 가지들은 봄바람을 못 이기어 동네 어귀에 흐늘거려 늘어지며, 푸른 대나무와 소나무는 우거진 가지에 백조 봄의 정을 다투었다. 층층이 이루어진 꽃핀 골짜기 위에는 앵무새와 공작새가 넘나들며 노는데, 푸른 하늘에 걸린 폭포가 층암절벽 치는 소리, 한산사 쇠 북소리, 객선에 이르는 듯, 하늘에 솟은 암석과 푸른 소나무 속에 있는 거동이 산수 그림 팔 간 병풍 두른 듯하니 산중에 있는 경치 어찌 다 기록하리.

봄바람이 언 듯하며 경쇠 소리 들리거늘 차츰차츰 들어가니 오색구름 속에 단청하고 휘황한 높고 거대한 누각이 즐비하여 일주문을 바라보니 황금 글자로 '서해 광덕산 백룡사'라 뚜렷이 붙어 있더라. 문으로 들어가니 큰스님이 한 사람 나오거늘 그 중의 거동을 보니 소소한 두 눈썹은 두 눈을 덮어 있고, 백변같이 뚜렷한 귀는 두 어깨에 늘어졌으니 맑고 빼어난 골격과 은은한 정신은 평범한 중이 아닐러라.

백팔염주 육환장을 짚고 흑포장삼의 떨어진 송낙 쓰고 나오며, 유생을 보고 말하길,

"소승이 나이가 많기로 유 상공 오시는 행차에 동구 밖에 나가 맞지 못하니 소승의 무례함을 용서하옵소서."

유생이 크게 놀라 하는 말이

"천한 인생에 팔자 기박하여 일찍 부모를 여의고 정처 없이 다니다가 우연히 이곳에 와 대사를 만나오니, 그토록 관대하시며, 소생의 성을 어찌 아나이까?"

[중략 줄거리] 충렬은 백룡사의 큰스님에게 도술을 배우고, 무기를 얻는다. 이후 정한담은 외적과 결탁하여 반란을 일으킨다.

정한담이 크게 기뻐하여 옥관 도사의 말대로 약속을 정하고 며칠을 지낸 후에, 갑주를 갖추고 진영 문에 나서며 원수를 불러,

"네 한갓 혈기만 믿고 우리를 대적하니 자식들이 가엾도다. 빨리 나와 자웅을 결단하라."

이때에 원수 의기양양하여 진전에 횡행타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응성출마하고 한 번 겨루지도 않고 거의 잡게 되었더니, 적진이 또한 쟁을 쳐 거두거늘 이긴 김에 계속 쫓아가 바로 적진 선봉을 헤쳐 달려들 때, 장대에서 북소리 나며 난데없는 안개가 사면에 가득하고 적장이 간 데 없고 음산한 바람이 소소하며 차가운 눈이 흩날리니 지척을 모를러라. 가련하다, 유충렬이 적장 꾀에 빠져 함정에 들었으니 목숨이 경각이라. 원수가 크게 놀라 신화경을 펴 놓고 둔갑술로 몸을 감추고 안순법을 베풀어 진영 안을 살펴보니, ㉡토굴을 깊이 파고 그 가운데 장창 검극은 삼대같이 벌였으며, 사해의 신장이 나열하여 독한 안개, 모진 모래를 사면으로 뿌리면서 함성 소리 크게 질러 항복하라는 소리 천지에 진동하는지라. 원수 그제야 간계에 빠진 줄 알고 신화경을 다시 펼쳐

육정육갑을 베풀어 신장을 호령하고, 풍백을 바삐 불러 구름과 안개를 쓸어버리니, 명랑한 푸른 하늘과 밝은 해가 일광주를 희롱하고 장성검은 번개 되어 적진이 요란하다. 적진을 살펴보니 무수한 군졸이며 진영에 모든 복병이 둘러싸서 백만 겹을 에웠는데, 장대에서 북을 치며 군사를 재촉하거늘, 원수가 분노하여 일광주를 다시 만져 용린갑을 다스리고 천사마를 채찍질하여 좌우의 진영 안에서 호통하며 좌충우돌 횡행할 때, 호통 소리 지나는 곳에 번갯불이 일어나며 번갯불이 일어나는 곳에 뇌성벽력이 진동하니 군사와 장수가 넋을 잃고 모든 장수 귀가 먹고 눈이 어두워 제 군사를 제가 모른다. 서로 밝혀 분주할 때, 장성검은 동쪽 하늘에 번듯하며 오랑캐 적이 쓰러지고 서쪽 하늘에 번듯하여 전후 군사 다 죽으니 추풍낙엽 볼 만하며, 무릉도원에 붉은 물이 흐르나니 핏물이라.

선봉 중군 다 헤치고 적진 장대 달려드니 정한담이 칼을 들고 대상에 섰거늘, 호통 소리 크게 하고 장성검을 높이 들어 큰 칼에 베어 들고 후군에 달려드니, 이때 황후와 태후가 적진에 잡혀가서 토굴 속에서 소리하여 하는 말이,

"저기 가는 저 장수는 행여 명나라 장수거든 우리 고부 살려 주소."

원수가 분한 기분이 등등하여 적진에 횡행타가 슬픈 소리 나매, 천사마를 그곳으로 행하거늘 급히 가 말에서 내려 말하길,

[A] "소장은 동성문 안에 거하던 유 주부 아들 충렬이온데, 아비 원수 갚으려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정문걸을 한칼에 베고, 그 후에 최일귀와 마룡을 잡고 한담의 목을 베려 이곳에 왔사오니 소장과 함께 본진으로 가나이다."

황후와 태후가 이 말을 듣고 토굴 밖에 나와 원수의 손을 잡고 치사하여 하는 말이,

[B] "그대는 분명 유 주부의 아들인가? 어디 가 장성하여 이런 명장 되었는가? 그대 부친은 어디 있느뇨? 장군의 힘을 입어 우리 고부 살려 내어 백발이 성성한 이내 몸이 황제 아들 다시 보고, 곱고 고운 젊은 얼굴 내 며느리 황제 낭군 다시 보게 하니, 그 공로 그 은혜는 태산이 무너져서 평지가 되어도 잊을 수 없고, 천지가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될지라도 잊을 가망 전혀 없네. 머리를 베어 신을 삼고 혀를 빼어 창을 받아 백 년 삼만 육천 일에 날마다 이고서도 그 공로를 다 갚을까. 본진에 돌아가서 내 아들 어서 보세."

원수 절하고 황후와 태후를 바삐 모셔 본진에 돌아와 정한담의 목을 내어 황제 전에 바치려고 칼끝에 빼어 보니 진짜는 간데없고 허수아비의 목을 베어 왔는지라. 원수가 분노하여 다시 싸움을 돋우더라.

– 작자 미상, 「유충렬전」 –

31.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인물이 권위를 내세우는 공간이다.
② ㉡은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공간이다.
③ ㉠은 ㉡과 달리 인물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공간이다.
④ ㉡은 ㉠과 달리 인물 간의 유대감이 형성되는 공간이다.
⑤ ㉠과 ㉡은 모두 인물이 고난을 겪는 공간이다.

32.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황후'는 유충렬의 도움으로 본진에 돌아왔다.
② '유충렬'은 정한담의 목을 베어 황제 전에 바쳤다.
③ '정한담'은 유충렬을 자극하여 싸움을 시작하고 있다.
④ '큰스님'은 백룡사에 찾아온 사람이 유충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⑤ '영릉골 관비'는 강 낭자의 자색과 태도를 알아보고 떠나지 않도록 회유하고 있다.

33.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는 [B]와 달리 과거 사건을 근거로 들며 문제 해결을 유보하고 있다.
② [B]는 [A]와 달리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상대를 설득하고 있다.
③ [A]와 [B]는 모두 대상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며 상대의 행동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④ [A]와 [B]는 모두 자신의 신분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발화에 대한 상대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있다.
⑤ [A]는 이전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B]는 변화된 현재 상황에 대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3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유충렬전」은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다양한 문학적 장치를 활용하여 대중 소설로서 큰 인기를 끌었다. 그 예로는 영웅의 잠재 능력을 표출시키는 초월적 조력자, 주인공의 영웅성을 더욱 부각하는 신물(神物), 영웅과의 치열한 군담을 만드는 적대자, 위기에 처한 인물의 이야기를 중단하여 독자의 궁금증을 고조시킨 후 다른 인물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단절기법 등이 있다. 또한 일반 백성이 전란으로 겪는 수난을 소설 속 왕가(王家)를 통해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게 하였다.

① 강 낭자를 중심으로 하는 서사가 '각설'을 통해 유충렬의 서사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단절기법을 확인할 수 있겠군.
② 유충렬이 백룡사의 '큰스님'을 만나는 부분에서 초월적 조력자가 영웅의 잠재 능력을 표출시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③ '정한담'이 유충렬을 함정에 들게 한 부분에서 영웅과의 치열한 군담을 만드는 적대자를 확인할 수 있겠군.
④ 유충렬이 '일광주'와 '장성검'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주인공의 영웅성을 부각하는 신물을 확인할 수 있겠군.
⑤ '황후'와 '태후'가 토굴에서 살려 달라고 소리치는 부분에서 일반 백성이 전란으로 겪은 수난을 재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군.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산 정약용이 생각하기에 당대 사람들이 인정했던 최고의 진리는 유가의 경전이다. 다산은 유가의 경전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재해석함으로써 시대가 당면한 어려움을 돌파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였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과거로 달려갔다는 점에서 다산은 전통의 충실한 계승자이지만 단순한 계승에 그치지 않고 유가 경전을 재해석하면서 새로운 사유를 전개하였다. 경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이루어진 다산 윤리학의 특징을 살펴보자.

정약용에 따르면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다. 하지만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악은 행하기가 쉽고 선은 행하기가 어렵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선천적으로 주어져 선과 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자유의지에 의한 선한 행위가 공적이 될 수 있고 악한 행동이 죄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을 선택할 수도 악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을 갖는다고 본 것이다. 다산은 사회를 선하고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의지와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며 이러한 의지와 선택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정약용은 인간은 자유의지로써 행동하여 인(仁)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인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각자가 상대에게 마땅한 도리를 다하는 실천을 통해서 얻어지는 덕목이라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인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특히 위정자로서 정약용은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여 인을 성취하고자 하였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세상에 나갈 수 없게 된 상황을 절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정약용이 인을 완성할 수 있는 실천 원리로 제시한 것이 무엇일까? 서(恕)이다. 정약용이 말하는 서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상대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나아가 자신이 상대에게 바라는 것을 먼저 상대에게 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서로써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다산은 『맹자』에 나오는 만물의 이치가 모두 자신에게 있다는 뜻의 '만물개비어아(萬物皆備於我)'에 대한 해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내가 재물을 좋아하니 백성도 재물을 좋아함을 알 수 있다. 내가 편안함을 좋아하니 백성도 편안함을 좋아함을 안다. 내가 천대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기 싫어하니 백성도 그러함을 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묻고 안색을 살핀 다음에야 그들이 나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해석에서 보듯이 다산은 인간의 감정과 생각에 보편성이 있으므로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미루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 서는 타자에 대한 상호 평등성의 인정과 인격 존중에 기초하고 있으며 누구나 노력하면 실천할 수 있는 행위 원리이다.

다산은 서를 행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자세를 신독(愼獨)이라고 보고 신독은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자세'라고 하였다. 두려움과 공경의 대상은 바로 하늘이다. 정약용은 인간에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천성을 부여한 존재인 하늘을 두려워하고 공경해야 선을 실천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약용은 당시 사대부들에게 군주와 백성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약용은 신독 공부를 남들이 모르는 일에도 생각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며, 자신이 했던 행동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면서 허물과 과오를 꾸짖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신독 공부를 평상시에도 할 것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경건한 태도를 몸에 익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신독 공부를 통해서 내면의 진실성을 유지하고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를 통제하는 내면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산 윤리학에서 신독은 인간관계에서 적극적인 윤리적 실천을 통해 선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는 힘이며 정신적 구심점이다.

다산 윤리학은 생활 속에서 선의 실천을 지향하는 생활 현장의 윤리이다. 실천하는 것과 평상시에 마음을 수양하는 것을 통해 타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라는 최종 목적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 다산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 ㉠ 상호 주관적 공동 세계인 것이다.

35. '다산 윤리학'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행동을 통해 인을 얻을 수 있다.
② 인간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③ 서(恕)로써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타인에게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④ 인을 완성할 수 있는 실천 원리는 상호 평등성의 인정과 인격 존중에 기초한다.
⑤ 만물개비어아는 인간 감정의 보편성을 통해 자기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36.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선천적인 품성을 올바르게 바꿔가며 살아가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겠군.
② 자유의지로 사람들 사이에서 선을 실천하며 사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겠군.
③ 생활 속에서 누구나 노력 없이 선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하는 것이겠군.
④ 인간이 타자와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고 자유의지를 통해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겠군.
⑤ 실천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며 사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겠군.

37. 신독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면서 자신을 통제하게 하는 것이다.
② 선과 악의 선택에서 벗어나 내면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③ 잘못을 꾸짖는 내면의 목소리이며 선을 실현하게 하는 정신적 구심점이다.
④ 자신이 혼자 아는 일에도 생각과 행동을 조심하며 내면의 진실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⑤ 악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인간에게 하늘의 눈은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3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요즘 천재지변으로 해마다 흉년이 들어, ⓐ 백성들이 굶주림을 면치 못하고 고통을 받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재정부에 명령하여 나라의 곳간을 열고, 연달아 감사관을 보내 ⓑ 백성의 쓰라림을 돌보지 않는 수령들을 징계한 바 있다. 슬프다. 부덕한 ⓒ 나로서는 백성들이 굶어 죽는 모습들을 모두 다 알 수 없으니, 수령과 같은 백성과 가까운 관원들은 나의 이 진심 어린 뜻을 새겨, 관할 구역의 백성들이 굶주려 떠돌아다니지 않게끔 유의하라. 나는 장차 다시 ⓓ 조정의 관원을 파견하여, 그에 대한 행정 상황을 조사할 것이며, 만약 한 백성이라도 굶어 죽은 자가 있다면, 수령이 교서를 위반한 것으로써 죄를 논할 것이라.

–『세종실록』, 세종 1년(1419) –

① ⓐ를 서(恕)로써 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 인을 성취할 수 있겠군.
② ⓑ는 ⓐ와의 관계에서 인을 성취하지 못하였군.
③ ⓒ는 ⓑ에게 한 행위를 통해 ⓐ와의 관계에서 인을 성취하였군.
④ ⓒ는 ⓓ가 서(恕)로써 ⓐ를 대하기를 바라겠군.
⑤ ⓓ의 자유의지에 따른 행위는 ⓒ에 의한 것이므로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겠군.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苦忘亂抽書　잊기를 자주 하여 어지러이 뽑아 놓은 책들
散漫還復整　흩어진 걸 다시 또 정리하자니
曜靈忽西頹　해는 문득 서쪽으로 기울고
江光搖林影　강 위에 숲 그림자 흔들린다.
扶笻下中庭　막대 짚고 마당 가운데 내려서서
矯首望雲嶺　고개 들어 구름 낀 고개 바라보니
漠漠炊烟生　아득히 밥 짓는 연기가 피어나고
蕭蕭原野冷　쓸쓸히 들판은 서늘하구나.
田家近秋穫　농삿집 가을걷이 가까워지니
喜色動臼井　절구질 우물가에 기쁜 빛 돌아
鴉還天機熟　갈까마귀 돌아오니 절기가 무르익고
鷺立風標迥　해오라기 서 있는 모습 우뚝하고 훤하다.
我生獨何爲　내 인생은 홀로 무얼 하는 것인지
宿願久相梗　**숙원이 오래도록 풀리질 않**네.
無人語此懷　이 **회포** 털어놓을 사람 아무도 없어
搖琴彈夜靜　**거문고만 둥둥** 탄다, **고요한 밤**에.

– 이황, 「만보(晩步)」 –

(나)

밤이다.

㉠ 하늘은 푸르다 못해 농회색으로 캄캄하나 별들만은 또렷또렷 빛난다. 침침한 어둠뿐만 아니라 오삭오삭 춥다. ㉡ 이 육중한 기류 가운데 자조하는 한 젊은이가 있다. 그를 나라고 불러두자.

나는 이 어둠에서 배태*되고 이 어둠에서 생장하여서 아직도 이 어둠 속에 그대로 생존하나 보다. 이제 내가 갈 곳이 어딘지 몰라 허우적거리는 것이다. 하기는 나는 세기의 초점인 듯 초췌하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내 바닥을 반듯이 받들어 주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 머리를 갑박이 내려 누르는 아무것도 없는 듯하다마는 내막은 그렇지도 않다. 나는 도무지 자유스럽지 못하다. ㉢ 다만 나는 없는 듯 있는 하루살이처럼 허공에 부유하는 한 점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하루살이처럼 경쾌하다면 마침 다행할 것인데 그렇지를 못하구나!

이 점의 대칭 위치에 또 하나 다른 **밝음의 초점**이 도사리고 있는 듯 생각된다. 덥석 움키었으면 잡힐 듯도 하다.

마는 그것을 **휘잡**기에는 나 자신이 둔질*이라는 것보다 오히려 내 마음에 **아무런 준비도 배포*치 못**한 것이 아니냐. ㉣ 그리고 보니 행복이란 별스러운 손님을 불러들이기에도 또 다른 한 가닥 구실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될까 보다.

이 밤이 나에게 있어 어릴 적처럼 한낱 공포의 장막인 것은 벌써 흘러간 전설이요, 따라서 이 밤이 향락의 도가니라는 이야기도 나의 염두에선 아직 소화시키지 못할 돌덩이다. 오로지 밤은 나의 도전의 호적(好敵)*이면 그만이다.

이것이 생생한 관념 세계에만 머무른다면 애석한 일이다. 어둠 속에 깜박깜박 졸며 다닥다닥 나란히 한 초가들이 아름다운 시의 화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벌써 지나간 제너레이션의 이야기요, 오늘에 있어서는 다만 말 못 하는 비극의 배경이다.

㉤ 이제 닭이 홰를 치면서 맵짠 울음을 뽑아 밤을 쫓고 어둠을 짓내몰아 동 켠으로 훤–히 새벽이란 새로운 손님을 불

러온다 하자. 하나 경망스럽게 그리 반가워할 것은 없다. 보아라, 가령 새벽이 왔다 하더라도 이 마을은 그대로 암담하고 나도 그대로 암담하고 하여서 너나 나나 이 가랑지길*에서 주저주저 아니치 못할 존재들이 아니냐.

나무가 있다.

그는 나의 오랜 이웃이요, 벗이다. 그렇다고 그와 내가 성격이나 환경이나 생활이 공통한 데 있어서가 아니다. 말하자면 극단과 극단 사이에도 애정이 관통할 수 있다는 기적적인 교분의 한 표본에 지나지 못할 것이다.

[B] 나는 처음 그를 퍽 불행한 존재로 가소롭게 여겼다. 그의 앞에 설 때 슬퍼지고 측은한 마음이 앞을 가리곤 하였다. 마는 오늘 돌이켜 생각건대 나무처럼 행복한 생물은 다시없을 듯하다. 굳음에는 이루 비길 데 없는 바위에도 그리 탐탁지는 못할망정 자양분이 있다 하거늘 어디로 간들 생의 뿌리를 박지 못하며 어디로 간들 생활의 불평이 있을쏘냐. 칙칙하면 솔솔 솔바람이 불어오고, 심심하면 새가 와서 노래를 부르다 가고, 촐촐하면 한줄기 비가 오고, 밤이면 수많은 별들과 오손도손 이야기할 수 있고—보다 나무는 행동의 방향이란 거추장스러운 과제에 봉착하지 않고 인위적으로든 우연으로써든 탄생시켜 준 자리를 지켜 무진무궁한 영양소를 흡취하고 영롱한 햇빛을 받아들여 손쉽게 생활을 영위하고 오로지 하늘만 바라고 뻗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행복스럽지 않으냐.

이 밤도 **과제를 풀지 못하여 안타까**운 나의 마음에 나무의 마음이 점점 옮아오는 듯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랑을 자랑치 못함에 뼈저리는 듯하나 나의 젊은 선배의 웅변이 왈 선배도 믿지 못할 것이라니 그러면 영리한 나무에게 나의 방향을 물어야 할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동이 어디냐 서가 어디냐 남이 어디냐 북이 어디냐. 아라! 저 별이 번쩍 흐른다. 별똥 떨어진 데가 내가 갈 곳인가 보다. 하면 **별똥**아! **꼭 떨어져야 할 곳에 떨어져야 한다.**

– 윤동주, 「별똥 떨어진 데」 –

* 배태 : 아이나 새끼를 뱀.
* 둔질 : 둔한 성질이나 기질.
* 배포 : 머리를 써서 일을 조리 있게 계획함.
* 호적 : 실력이 비슷하여 상대가 될 만한 좋은 적.
* 가랑지길 : 갈림길.

39.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간의 대비를 통해 일상의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② 대상과의 문답을 통해 삶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시간적 배경의 의미를 활용하여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④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설의적 표현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자세를 제시하고 있다.

40.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음성 상징어를 통해 희망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② ㉡: 자신을 객관화하여 지칭하며 암담한 상황에서 자신을 비웃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③ ㉢: 자신과 유사한 처지의 대상을 통해 방황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④ ㉣: 대상을 의인화하여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노력이 필요함을 드러내고 있다.
⑤ ㉤: 가정적 진술을 활용하여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4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는 [B]와 달리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심리적 변화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B]는 [A]와 달리 자연물에 대한 변화된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
③ [A]와 [B]는 모두 계절감을 드러내는 자연물을 통해 결실에 대한 기쁨을 나타내고 있다.
④ [A]의 자연물에는 과거에 대한 상실감이, [B]의 자연물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다.
⑤ [A]에서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B]에서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물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42.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어떤 상황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이유를 자기에게서 돌이켜 찾는 것이 반구저기(反求諸己)의 태도이다. 이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은 자신이 그 상황에 책임이 있다는 주체적 각성으로, 수동적이고 비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찰하는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감정이다. (가)의 화자는 학자로서 목표한 학문적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여기는 개인적 상황에서 생각에 잠기고, (나)의 글쓴이는 식민지 현실이라는 공동체의 상황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삶에 대한 방향을 찾지 못하는 데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① (가)의 '숙원이 오래도록 풀리질 않'은 '회포'는 화자가 학문적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여기는 것에서 느끼는 심정이겠군.
② (가)의 '고요한 밤'에 '거문고만 둥둥' 타는 것은 화자가 주체적으로 각성하게 되는 원인이겠군.
③ (나)의 '아무런 준비도 배포치 못'해 '밝음의 초점'을 '휘잡'지 못한다는 것에서 글쓴이의 반구저기의 태도가 드러나는군.
④ (나)의 '과제를 풀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것은 식민지 현실이라는 공동체의 상황에서 글쓴이가 느끼는 부끄러움이겠군.
⑤ (나)의 '별똥'이 '꼭 떨어져야 할 곳에 떨어져야 한다'는 것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삶에 대한 방향을 찾고 싶은 글쓴이의 소망이 드러나는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해바라기 씨를 ㉠ 심자.
담모퉁이 참새 눈 숨기고
해바라기 씨를 심자.

누나가 손으로 ㉡ 다지고 나면
바둑이가 앞발로 다지고
괭이가 꼬리로 다진다.

우리가 눈 감고 한밤 자고 나면
이슬이 내려와 같이 자고 가고,

우리가 이웃에 간 동안에
햇빛이 입 맞추고 가고,

해바라기는 첫 시악시인데
㉢ 사흘이 지나도 부끄러워
고개를 아니 든다.

가만히 엿보러 왔다가
소리를 깩! 지르고 간 놈이
오오, 사철나무 잎에 숨은
청개구리 고놈이다.

– 정지용, 「해바라기 씨」 –

(나)

낙타를 타고 가리라, 저승길은
㉣ 별과 달과 해와
모래밖에 본 일이 없는 **낙타**를 타고.
세상사 물으면 짐짓, 아무것도 못 본 체
손 저어 대답하면서,
슬픔도 아픔도 까맣게 잊었다는 듯.
누군가 있어 **다시 세상에 나**가란다면
낙타가 되어 가겠다 대답하리라.
별과 달과 해와
모래만 보고 살다가,
돌아올 때는 세상에서 ㉤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 **등에 업고 오겠**노라고.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았는지도 모르는
가장 가엾은 사람 하나 골라
길동무 되어서.

– 신경림, 「낙타」 –

4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도치의 방식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②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③ 자연물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④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간의 급박한 흐름을 보여 주고 있다.
⑤ 대조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화자의 달라진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44. ㉠ ~ ㉤의 시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의 청유형을 반복하여 '해바라기 씨'를 심는 행위를 의미 있게 생각하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② ㉡의 행위를 반복하여 '해바라기' 꽃을 피우기 위해 여럿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③ ㉢에서 시간의 경과를 제시하여 '해바라기'가 '고개를' 들기까지 기다리지 못해 단념하는 '우리'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④ ㉣에서 유사한 속성의 시어를 나열하여 '저승길'을 '낙타'와 동행하고 싶은 이유를 부각하고 있다.
⑤ ㉤을 수식어로 반복하여 '길동무'로 삼고 싶은 사람의 특징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낙타」의 화자는 자연 현상인 죽음을 부정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죽음과 삶 사이의 경계를 초월하여 회귀의 구조로 삶과 죽음을 바라본다. 이 과정에서 화자는 이승에서의 자기 삶을 돌아보고, 자기 삶의 모습이 자신이 추구하는 모습과 다름을 인식한다. 또한 화자 자신이 닮고자 하는 대상처럼 살아온 사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기도 한다.

① '손 저어 대답'하는 것에는 자연 현상인 죽음을 담담하게 수용하라는 '누군가'의 말을 외면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군.
② '다시 세상에 나'간다는 것에는 죽음과 삶 사이의 경계를 초월하여 죽음과 삶을 보는 시각이 전제되어 있군.
③ '낙타가 되어 가겠'다는 것은 삶의 세계로의, '돌아'온다는 것은 죽음의 세계로의 회귀를 나타내는군.
④ '별과 달과 해와/모래만 보고 살'겠다는 것에는 '슬픔도 아픔도' 있었던 이승에서의 삶과 다르게 살고 싶은 바람이 드러나 있군.
⑤ '등에 업고 오겠'다는 것에는 '낙타'처럼 살아온 사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반영되어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